



채란계

노력한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지 난해(을유년)우리 채란산업은 우리 채란인들에게 지옥과 천당을 오고가는 한해로 기억해 볼 수 있다. 닭의 해를 맞이하여 출발은 아주 산뜻하고 활기가 넘치는 한해였지만 그 이후 과잉생산으로 인한 난가폭락, 또한 HP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과대 언론 보도로 인한 소비감소는 우리 양계인에게는 더욱 더 분노를 자아내게 할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또한 수급이 불안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적절한 수요예측에 맞는 입추를 통하여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가려는 절실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은 힘들어도 오늘보다 희망이 있는 내일이 있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지난 한해는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는 새해가 있기에 우리는 피곤한 오늘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겠는가? 올 새해에는 우리 채란업계에서 당면한 문제는 물론 기대해 볼 일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본다.

생산비를 밀도는 계란값도 새해에는 생산비 선을 훌쩍 뛰어넘어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계란가격이 유지되어 주었으면 한다. 지난



김 선 응
채란분과위원장

한해를 생각해보면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더라도 계란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가격 깎아먹기 또한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장사라는 것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게 최대 목적이지만 생산비도 안되는 가격에 또 깎으려 한다.

새해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며, 전국의 채란업을 책임지고 있는 채란분과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시정해야 할 사항임을 명심해 본다.

새해의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은 첫 번째, 과잉

생산으로 인한 불황타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정부공식자료에 의하면 2005년 산란계 수수는 5천4백만 수로 전분기보다 5.9%, HPAI 발생하기 전인 2003년 동기보다 10.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계란이 과잉생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채란분과 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부화장과 합의하여 월 2백만수 생산을 하기로 하였고 12월 채란분과 위원회에서는 2월까지 부화장에 연장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우리 채란인 모두가 적기 노계 도태 및 계란소비 홍보강화에 적극 동참하여 불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의무자조금 실현으로 불황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계란소비는 의무자조금 조기 정착을 통한 대국민 소비 홍보로 1인당 계란소비량을 늘려가야 하고 이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채란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의무자조금제도 정착이 난항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해에는 더욱 더 의무자조금 정착을 위하여 매진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HPAI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올 연말쯤 되면 다시 붉어져 나올 언론보도 자체 또한 소비자에게 정확한 홍보를 통한 HPAI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농가에서는 지금과 같은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채란인 여러분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양계업 발전에 더욱 정진하시고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양계**

“

우리 채란인 모두가 적기 노계 도태 및 계란소비 홍보강화에 적극 동참하여 불황을 극복해 나가야..

”